



## Manifesto of the symposium "Communication for Social Justice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사회정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심포지엄 선언문

This Manifesto is the outcome of a symposium on “Communication for Social Justice in a Digital Age,” held from 13 to 15 September 2021. The symposium explored the challenges of digital commun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and identified opportunities for concerted and collaborative actions among faith, civil society, academic, media and technological organizations.

이 선언문은 2021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디지털 시대의 사회정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선언문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종교,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와 기술단체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The symposium was organized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nd the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Co-organizers included Brot für die Welt (Bread for the World), the Evangelical Church in Germany (EKD), Evangelische Mission Weltweit (EMW, Association of Protestant Churches and Missions in Germany), and the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이 심포지엄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의회(WACC)가 주관했다. 독일 브레드포더월드, 독일 개신교회(EKD), 독일 개신교 선교국(EMW)과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이 공동주관했다.

The event brought together research, experiences from different regions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expert input on economic and political trends, and eth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 as a contribution to the WCC’s 11th Assembly in September 2022.

이 심포지엄은 2022년 9월에 열리는 WCC 제11차 총회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과 소외된 공동체의 경험, 경제 및 정치 동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윤리적, 신학적 성찰을 함께 진행했다.

Communication for Social Justice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사회정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Manifesto  
선언문

Our global context  
세계적 상황

Digital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our world and the multiple spaces in which we live and move.

디지털 기술은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These technologies offer us new ways to communicate, to inform ourselves and navigate the world, to advocate for our human dignity and rights, and for our voices to be heard.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소통하고, 우리 자신을 알리고, 세상을 탐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옹호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They create new ways for u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beyond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디지털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

They can be powerful tools for living in relation with others, for inclusion, education, encounter, imagination, creativity, and understanding.

디지털 기술은 포용, 교육, 만남, 상상력, 창의성과 이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Yet digital technologies provide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Digital platforms are also being used to spread deliberate disinformation and hate and undermine human dignity and rights.

디지털 플랫폼은 의도적인 허위 정보와 증오를 퍼뜨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Politically motivated digital campaigns of “fake news” undermine democratic processes and responsible journalism.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의 디지털 캠페인은 민주적 절차와 책임있는 저널리즘을 훼손한다.

While digital platforms seem to provide unfettered opportunities for freedom of expression, growing digital technology monopolies threaten a diversity of voices and perspectives.

디지털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무제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기술 독점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위협한다.

Communication is increasingly mediated by proprietary platforms that promise a dream of democratized empowerment but monetize data and time in the so-called attention economy. Users have become the new commodity.

커뮤니케이션은 민주화된 권한 위임의 꿈을 약속하지만 소위 ‘관심 경제’에서 데이터와 시간을 상품화하는 독점 플랫폼에 의해 점점 영향을 받고 있다. 사용자들은 새로운 상품이 되었다.

Private data is increasingly requested, collected, and controlled by a small number of platforms to take advantage of people for economic and political purposes.

사적 데이터는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소수의 플랫폼에 의해 점점 더 요청되고, 수집되고, 통제되고 있다.

Surveillance, marginalization, and militarization are significant threats in digital spaces.

감시, 주변화, 군사화는 디지털 공간에서 중대한 위협이다.

Algorithms developed according to subjective criteria reflect the ongoing effects of colonization, racism, and systemic power imbalances and exacerbate existing inequities and discrimination.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은 식민지화, 인종 차별주의, 그리고 구조적인 권력 불균형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반영하고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을 악화시킨다.

The COVID-19 pandemic also amplifies inequities – those who are digitally excluded become increasingly marginalized due to a shift to online learning and economies. Cybersecurity concerns are increased, particularly in healthcare.

코로나 대유행 역시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점점 소외되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Theological perspectives 신학적 관점

This transformation of society raises profound issues that the ecumenical fellowship has wrestled with for many decades: power, justice, equity, participation, promoting sustainable communities, how voices from the margins are heard, as well as human dignity.

이러한 사회변화는 에큐메니칼 협의체가 수십 년 동안 다루어 온 중대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권력, 정의, 평등, 참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촉진,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그것이다.

In seeking to respond to the issues raised by digital transformation, we can find in many faith traditions an incredible depth of insight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to live justly within the web of creation.

디지털 변환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종교적 전통에서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고, 창조의 그물망 안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놀랍게 깊이있는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다.

Two intrinsically connected aspects must play a central role in a theological reflection on digital justice: relationality and vulnerability.

본질적으로 연결된 두가지 측면인 관계성과 취약성이 디지털 정의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Christians believe that being created in the image of God provides inherent dignity to every woman, man, and child (Gen 1:27). Humans are created to be relational and capable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We are called to take responsibility and care for God's creation.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모든 여성, 남성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유한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믿는다(창세기 1:27). 인간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책임지고 돌보라고 부름 받았다.

In Jesus Christ, God became vulnerable and shared human life. Therefore, creation and human beings remain at the centre of our reflections and our concerns. This shared vulnerability motivates us to protect individual and community rights and use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wellbeing of human beings. The biblical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and vulnerable directs our attention to information poverty and the digital divides in the global face of digitalization (Matt 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연약해지셨고 인간의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인간은 우리의 성찰과 관심의 중심에 서있다. 이 공유된 연약함은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성경적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디지털화의 세계적 추세에서 정보 빈곤과 디지털 격차에 대해 관심있게 한다(마태복음 5 장).

We are called to a journey of justice and peace and to ensure the integrity of creation.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여정과 창조의 보전을 위해 부름 받았다.

We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God's mission to ensure that all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also in the digital sphere (John 10:10).

우리는 디지털 영역에서도 모두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요한복음 10:10).

In 2022, the ecumenical fellowship will gather in Karlsruhe, Germany, for the 11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a world marred by many kinds of injustice and by the pain of many of its people, its creatures, and even of the Earth itself.

에큐메니칼 협의체가 2022년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리는 제 1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위해 많은 종류의 불의와 많은 사람들, 피조물, 그리고 지구 자체의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모일 것이다.

But it is also a world that is witnessing movements of change, justice, and hope.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변화, 정의 그리고 희망의 운동을 증언하고 있는 세상이다.

Issues and challenges  
문제와 과제

Digitalization in its many forms raises new questions about human identity and freedom. Not only social coherence but human dignity itself is at stake.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는 인간의 정체성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사회적 통합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위협하게 한다.

Digitalization also raises questions of ecological justice, including the use of resources and the planned obsolescence of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화는 또한 자원의 사용과 계획된 퇴화를 포함한 생태 정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Political, cultural, and civil society actors, academic sectors, and communities of faith are all struggling to respond effectively.

정치, 문화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학계, 종교계가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o respond to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digital age, we need an inclusive and holistic participatory approach that is both international and intergenerational, based on the sacred value of social justice.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 기회에 응답하기 위해 사회 정의의 신성한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참여방법이 필요하다.

This prompts us to ask: How can we envision and work for a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cosystem based on social justice principles, such as inclusive participation, freedom, equity, sustainable life, and solidarity, that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포용적 참여, 자유, 평등, 지속가능한 삶, 연대와 같은 사회 정의 원칙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생태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 수 있겠는가?

- enables everyone to exercise fully their human rights, civi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모두가 자신의 인권, 시민권 그리고 책무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한다.
- strengthens a sense of belonging and collective participation
- 소속감과 집단적 참여를 강화한다.
- encourages alliances and coalitions that build credibility, mutual accountability, and trust
- 신용, 상호책임성 및 신뢰를 구축하는 동맹과 연합을 장려한다.
- seeks to include and celebrate missing, ignored, silenced, and marginalized voices in the digital sphere
- 디지털 영역에서 누락, 무시, 침묵 그리고 소외된 목소리를 참여시키고 격려한다.
- combats explicit and implicit bias, racism, gender discrimination, and extremism in digital technologies
- 디지털 기술에서 명백하고 암묵적인 편견, 인종 차별, 성차별 및 극단주의를 근절한다.
- expresses solidarity with the communities it serves, and is not profit- or power-oriented
- 공동체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이익이나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다.
- encourages platforms that promote community, cohesion, collaboration, and relationship building for human wellbeing and the wellbeing of the planet
- 인간 및 지구의 안녕을 위해 공동체, 통합, 협업과 관계 구축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장려한다.
- encourages platforms that are transparent and openly name the values that drive the platform
- 플랫폼을 움직이는 가치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플랫폼들을 장려한다.
- leverages Open-Source technologies in a digital economy and shares knowledge and data as open knowledge
- 디지털 경제에서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고 지식과 데이터를 열린 지식으로 공유한다.

We identified the following specific challenges: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확인한다:

The digital divides: We face various digital divides: economic, geographic, racial, educational, class, gender, age, cultural, technological, and global. There are also digitally caused divides.

디지털 격차: 우리는 경제적, 지리적, 인종적, 교육적, 계층적, 성별, 나이, 문화적, 기술적 그리고 세계적인 다양한 디지털 격차에 직면해 있다. 또한, 디지털로 인한 격차도 있다.

These digital divides point to both the complexity of social justice in a digital age and the need for intersectional reflection. Digital justice requires, at the same time, gender justice, climate justice, economic justice, racial justice, and so much more.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 정의의 복합성과 교차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모두 나타낸다. 디지털 정의는 젠더 정의, 기후 정의, 경제 정의, 인종 정의 등을 동시에 요구한다.

Accessibility: The primary concern is often seen as access to the digital space itself, emphasizing the difference between lower-, middle-, and higher-income economies, but also in-country differences. Meaningful access includes access to basic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uch as stable electricity and internet connections, tech devices, access to various digital tools, data, programming and content from the local cultural context, but also the legal frameworks and economic resources to access and invest in them.

접근성: 주요 관심사는 종종 디지털 공간 자체에 대한 접근성으로 간주되며,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차이뿐 아니라 국내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의미있는 접근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및 인터넷 연결, 기술 장치, 다양한 디지털 도구, 데이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지역 문화 배경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같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며, 그것들에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틀과 경제적 자원도 포함된다.

Access affects power relations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as such, access to digital technologies is both a cause and a result of divides.

접근성은 권력 관계와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므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격차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Accessibility is an essential issue in the disabled community. Digitalization has improve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entertainment, and social intera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essibility in this sphere, however, also remains divided along global wealth lines.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은 필수적인 문제이다. 디지털화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 오락과 상호 작용에 대한 참여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의 접근성은 세계적인 부의 경계를 따라 나뉘어져 있다.

Public space: This is the space where states and the public interact, where people, including the media, can express thoughts and feelings and participate democratically. Digitalization



creates the opportunity for expanding this space, but the restriction of digital freedom can also cause this space to shrink.

공적 공간: 이는 국가와 대중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미디어를 포함해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디지털화는 공적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디지털 자유의 제한은 이 공간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Inequity: Control, use, and analysis of data gathered due to digitalization are heavily vested in a few corporations and in specific geographic regions. Governments may also be heavily implicated in data control and manipulation.

불평등: 디지털화로 수집된 데이터의 통제, 사용 및 분석은 소수의 기업과 특정 지역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통제와 조작에 크게 관여할 수 있다.

Education: Digital education, including in questioning and critical examination of information and sources, is vital for all people. Access to this education is often sharply divided based on age, academic background, language, gender, geographical location, and societal gender roles.

교육: 정보와 자료에 대한 질문과 비판적 검토를 포함한 디지털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나이, 학력, 언어, 성별, 지리적 위치와 사회적 성역할에 따라 크게 나뉜다.

Gender justice: Women benefit from digitalization in the personal, educational, and economic arena,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space can contribute to full participation in all domains of life. However, pervasive gender power inequities restrict this access.

젠더 정의: 여성은 개인적, 교육적, 경제적 분야에서 디지털화의 혜택을 받고, 디지털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완전한 참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연한 성 권력 불평등은 이러한 접근을 제한한다.

Increased digitalization has also led to greater exposure of girls and women to sexualized harassment, surveillance, trolling, and online hate, which may also lead to physical violence. The impact of online violence is silencing women, forcing them to disengage from the digital space.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소녀들과 여성들이 성희롱, 감시, 트롤링과 온라인 증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폭력의 영향은 여성들을 침묵시키고 디지털 공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Privacy and security: The universal challenges of the use of data and loss of privacy are compounded by arbitrary government control, national digital laws and guidelines that are vague and fraught with loopholes, internet blackouts that clamp down on online dissent, and unwarranted state surveillance.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데이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보편적인 문제는 독단적인 정부통제, 모호하고 허점이 많은 국가 디지털 법률 및 지침, 온라인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인터넷 차단과 부당한 국가 감시로 인해 복잡해진다.

Militarization: There is military investment in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technologies are in turn militarized – increasing risk in situations of war and conflict.

군사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국방투자가 있으며, 그 기술은 차례로 군사화되어 전쟁과 분쟁의 상황에서 위험을 증가시킨다.

Principles to promote communication for social justice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사회 정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

No matter the issue – violence against women, abuse of children, poverty, conflict resolution, self-determination, racism, migration, labour rights, Indigenous rights, health, land, climate – little can be done without effective communication.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 학대, 가난, 분쟁 해결, 자기 결정, 인종 차별, 이주, 노동 권리, 원주민 권리, 건강, 토지, 기후와 같은 문제가 무엇이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For this, we need a holistic, inclusive approach to create digital technologies that promote life, dignity, and justice rather than undermine it.

이를 위해 생명, 존엄성, 정의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촉진시키는 디지털 기술을 만드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We need principles that allow all people to engage in transparent, informed, and democratic debate, where people have unfettered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essential to

peaceful coexistence, empowerment, responsible civic engagement, and mutual accountability.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공존, 역량 강화, 책임있는 시민 참여와 상호책임성에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고 정보에 기반한 민주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Rooted in the history of communication rights, these principles provide for a world in which: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역사에 근거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Everyone is entitled to communicate, to inform, and to share knowledge. This requires equitable access to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nd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 모든 사람은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 Everyone is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with particular consideration for minority and vulnerable groups. This requires inclusive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of media infrastructures and digital platforms.
- 모든 사람은 소수자와 취약 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며 정보통신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 인프라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이고 참여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Everyone is entitled to fair and unbiased public communication. This requires ethical norms, accountability, and redress for misrepresentation.
-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윤리적 규범, 책임, 잘못된 표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 Everyone is entitled to dignity and respect. This requir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media and digital platforms.
- 모든 사람은 존중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
- Everyone is entitled to privacy and control of their information, including deleting their data, provided they are not engaged in human rights abuses or criminal activity. This should be inherent and intrinsic to each person's digital identity and requires legal frameworks that balance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 모든 사람은 인권 침해와 범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 이는 각 개인의 디지털 정체성에 내재된 고유한 특성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
- Everyone is entitled to their own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This requires spaces for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and access to ownership and control of media.

-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문화와 언어의 정체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공간과 미디어의 소유와 통제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 Everyone is entitled to communication skills and media literacy. This requires culturally appropriate training and building dialogue, conversation, listening, opennes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 모든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훈련과 대화, 회화, 경청, 개방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Everyone has access to sustainable power sources to enable their digital or electronic media. This requires access to technologies such as solar or wind power.
- 모든 사람은 디지털 혹은 전자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력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 Everyone is entitled to affordable devices or public access to devices in safe spaces. This requires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the “right to repair.”
-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가격의 장치나 안전한 공간에서 장치에 대한 공적 접근의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수리할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다.

#### A transformative movement 변혁운동

To achieve digital justice, we need a transformative movement of individuals, communities, educational institutions, media agencies, and civil society – including communities of faith. We need government policies and actions that are informed and supported by civil society, founded on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 공동체, 교육 기관, 미디어 기관 그리고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 사회의 변혁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며 시민 사회의 정보와 지지를 받는 정부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Fundamental rights will not prevail on their own or through voluntary commitments by corporations. The broad support and joint commitment of civil society, including churches and faith communities, political actors, science, and business, is needed to guarantee and protect civil rights in the digital age and make the digital space usable for the common good.

기본권은 스스로 혹은 기업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공익을 위해 디지털 공간이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종교계, 정치행위자, 과학, 기업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원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We gathered in the symposium on “Communication for Social Justice in a Digital Age” to explore these issues – to reflect and to share visions of a future in which technologies are placed at the service of people rather than governments or corporations.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을 탐구하고, 디지털 기술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의 사회정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심포지엄에 모였다.

- We underlined the need for shared principles of inclusion, respect, and equity.
- 우리는 포용, 존중 그리고 공평성이라는 공통된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We pointed to the vital importance of communication rights for marginalized peoples and communities worldwide.
- 우리는 전 세계의 소외된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 We affirmed that rights in digital spaces must be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in public spaces.
-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가 공적 공간에서의 인권의 확장이어야 함을 확인했다.
- We rejected any justification of online violence through misuse of the gospel.
- 우리는 복음의 오용을 통한 온라인 폭력의 합리화를 거부했다.
- We agreed on the centrality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at young people have unique opportunities for intergenerational leadership in our digital transformation.
- 우리는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젊은이들이 디지털 변혁에서 세대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 We emphasized that collected (non-personal) data should be available to serve the common good.
- 우리는 수집된 (개인적이 아닌) 데이터를 공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We underlined the need for increased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corporations that have the power and ability to influence and shape public and political discourse.
- 우리는 공공과 정치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We highlighted the dangers of the darknet for illegal and harmful activities, such as organ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weapon- and drugs sales, and even recruitment to extremist organizations. We support interventions that help societies to eradicate these activities.

- 우리는 장기 밀매, 인신 매매, 성적 착취, 무기 및 마약 판매, 극단주의 조직원 모집과 같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활동을 일삼는 다크넷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입을 지지한다.
- We acknowledged the power of digital spaces as tools for oppressed communities to claim their identities and express themselves.
- 우리는 탄압받는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디지털 공간의 힘을 인정했다.
- We challenged faith communities to reach their potential to expand just digital access to those who are marginalized.
- 우리는 종교계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디지털 접근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전했다.

To unlock the opportunities and address the challenges of digital technologies, we need to re-imagine our digital public sphere continuously, emphasizing democracy, fundamental rights, mutual accountability, and solidarity.

디지털 기술의 기회를 열고 과제를 해결하려면, 디지털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고 민주주의, 기본권, 상호책임성과 연대를 강조해야 한다.

We will work with state and civil society actors and faith groups, to create spaces and channels that are inclusive, interactive, and participatory, promoting digital justice, expanding public space, and creating visions for the future.

우리는 국가와 시민사회 주역 및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포용적, 상호작용적, 참여적 공간과 채널을 만들고, 디지털 정의 촉진, 공적 영역 확대,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다.

We will encourage theological and ethical critiques of the powers that operate unregulated, commercially driven digital spaces.

우리는 규제되지 않고 상업적으로 디지털 공간을 주도하는 권력에 대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비평을 독려할 것이다.

We will create a grassroots, faith-inspired resistance to the forces challenging human dignity and flourishing in digital spaces.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며 번성해가는 세력에 대한 대중적, 종교적 저항을 만들 것이다.

In a continued and collaborative process, we commit ourselves to develop a programme of action to create this re-imagined reality in different contexts.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으로,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재구성된 현실을 만들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한다.

We will continue to act together so that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는 (아모스 5:24) 것이다.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ever-flowing stream. (Amos 5:24)

21 September 2021

2021 년 9 월 21 일

The two Koreas differ in minor matters of spelling, alphabetization, and vocabulary choice (including the names of the letters), but both essentially [endorse](#) the unified standards proposed b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in 1933.

#### *About the language*

Korean is the official language of both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re are 42 million speakers in South Korea and 20 million speakers in North Korea. There are also speakers in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with significant Korean diaspora. "The two Koreas differ in minor matters of spelling, alphabetization, and vocabulary choice (including the names of the letters), but both essentially endorse the unified standards proposed b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in 1933." (Sources: britannica.com, Asia Society)

#### *About the translator*

The Rev. Dr. Young-cheol-Cheon is an ordained pastor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e was named one of WACC's 12 honorary life members in 2018.